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든다

교통사고·자살·산재예방 등 3대 사망사고 제로화 본격화 강 시장 “컨트롤타워 될 것”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가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민선 8기 주요 안전정책 중 하나로, 행정과 시민이 손을 맞잡고 더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함께 한다.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설정과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 분야별 예방활동·시민의식

개선을 주도할 ‘시민실천단’ 등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앞서 광주시는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3개 분야 예방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시민실천단을 공개 모집해 총 407명을 선발했다.

광주시는 3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분야별 10대 분야 30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며, 운동본부는 이에 발맞춰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오는 6월부터 분야별 주관부서와 함께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 모니터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활동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명진·박필순·채은지 광주시의원, 운동본부 정책지원단과 시민실천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

행, 사망사고 제로화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제감도, 사고 경험사례, 안전 책무 인지도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3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연휴에도 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른 어디선가는 자살이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눈코 뜰 새 없는 이들이 있다”며 “나 자신, 또는 가족, 친구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행정과 시의회, 시민 모두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시장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장이 시민의 안전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

내달 23일까지 공개모집

전남도가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하반기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비영리단체로 여성·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이주노동자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프로그램

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상반기에 이은 2번째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높였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이며 전남도 자치행정과 인권센터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은 신청서류에 대해 1차 심사 후 전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2~4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7월 말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형민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30일 “민간단체와 협력해 도민 곁으로 다가갈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존중문화도 확산하겠다”며 “지역에서 활동중인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과잉생산 폐기’ 양파 기능성 식품 나온다

과잉생산으로 폐기되는 양파를 통째로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추진돼 소비처 다변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0일 “전남지역 특화작목인 양파의 생육시기별 영양·기능성 성분을 찾아내고 이에 적합한 가공기술을 개발해 과잉생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파는 주요 식자재일 뿐 아니라 퀘세틴 등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을 약 60~1000mg(1kg당) 함유, 항균·항바이러스·항염·항산화 활성 등 면역역에 좋은 채소다.

하지만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 폭이 커 재배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은 물론 산지 폐기처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 수확 직후 대부분 원물로 유통·

전남농기원, 가공기술 개발

젤리 출시... 소비처 다변화

소비되고 있어 부가가치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폐기 처리하는 양파의 활용은 물론 수급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냈다.

잎을 포함한 전체 양파 식물체로부터 영양·기능성 물질을 다량 추출하는 것으로, 4월 하순께 생육중인 양파는 대파보다 칼슘은 3배, 비타민C는 1.3배, 총염록소는 2.1배 영양성분이 우수했다.

특히 5월 하순께 수확한 양파는 플라보노이드화합물과 페놀화합물이 6

월께 수확한 양파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농기원은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일정 면적을 폐기하는 대신 목적에 맞게 시기별로 통째로 수확해 기능성물질 등을 추출해 이용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전남농기원은 현재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5월 하순께 수확한 양파에서 추출한 소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젤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선보일 예정이다.

이진우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양파즙에 국한돼 있는 가공제품을 다양화하고, 도내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양파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치산업 이끌 최고 김치 전문가 양성”

7~9월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대한민국 김치산업을 이끌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김치 최고 전문가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30일 “세계김치연구소 주관으로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 ‘2023년 광주김치타운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치 역사·문화와 정체성, 김치 제조 공정 이해와 실습, 원·부재료 발효 특성, 발효 메커니즘과 김치 종균 원리, 명인에게 배우는 궁중·중가·시골·토속김

치, 글로벌 김치시장 트렌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에 집중하는 여느 강좌들과 달리 김치의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김치 제조과정 혁신을 위한 최신 기술 등 세계김치연구소가 축적해온 과학적 연구자료, 김치명인의 노하우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사찰 김치 명장, 미술쟁 스타 셰프, 한국 1세대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복김치, 남도

이레음식 명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총책임은 김치 인문학 권위자인 세계김치연구소 박재민 박사가 맡는다.

모집인원은 20명 이내로 6월 30일까지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노형근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김치 산업과 국내외 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김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 집중호우 대비 하수시설물 집중정비

침수 등 선제적 대응

광주시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계절라성 집중호우와 도시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하수시설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한달 동안 침수 취약지역 37곳과 하수도사업 27개 현장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하수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빗물받이 정소상대 불량 등 9개의 보완사항을 정비했다.

또 태풍 미와르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하수시설물 특별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하수관로나 빗물받이가 스레기나 낙엽 등으로 막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준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중호우 때 배수불량 지역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등 상황별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호우특보 발효때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최

근 엘리로 등 이상기후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체계적인 상황대처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백운광장·서석고·신안교 일원 등 상습 침수지역에 펌프장, 저류조 등 침수예방시설과 스마트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인 침수대책으로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379억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 (399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6월중에는 도로나 주택의 침수상황 발생때 민원 처리 등 대응 능력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침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